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16.(금) 11:00 <1.17.(토) 조간> 배포 2026. 1. 16.(금)

“위기를 넘어 재도약 한다.” 화학산업, 26년을 반전의 원년으로

- 화학산업 신년 인사회 개최...정부·업계, 원팀으로 화학산업 재도약 드라이브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을 화학산업 반전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재도약 드라이브에 나섰다. 1월 16일(금)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6년 화학산업 신년인사회」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신학철 화학산업협회장 및 화학산업 주요인사 120여명이 참석하여 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근원적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새해 결속을 다졌다.

지난해 화학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인 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였고, 12월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의 모든 NCC/PDH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며 구조개편 1단계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의 신속한 이행을 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NCC (Naptha Cracking Center) : 나프타를 고온으로 분해하여 에틸렌을 생산하는 설비
* PDH (Propane, Dehydrogenation) :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프로필렌 생산 설비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지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 모든 기업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며, “올해에도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고,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사업재편 승인신청 이후 예비검토가 진행 중인 대산 1호(HD·롯데)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재편 승인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금융·세제·R&D·규제 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하는 한편, 다른 프로젝트도 최종 사업재편 계획서가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고부가 전환 지원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기획」, 벨류체인별 기업 지원, 기술개발·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 발표 등 구조개편 관련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혁 (044-203-4930)
		담당자	사무관	하원석 (044-203-493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화학산업 신년 인사회 행사 개요**

□ **일 시** : 2026. 1. 16(금) 17:30~19:30

□ **장 소** :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3F)

□ **참석자**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협회장, 업계 임원 등 약 120명

○ LG화학 신학철 부회장(협회장), 금호석유화학 백종훈 사장, 대한유화 강길순 사장, SK지오센트릭 김종화 사장, 한화솔루션 남정운 사장 등

□ **세부 진행순서**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7:30 ~ 17:35	5′	주요 내빈 소개	사회 (협회)
17:35 ~ 17:40	5′	모두발언	협회장
17:40 ~ 17:45	5′	모두발언	산업부
17:45 ~ 17:50	5′	기념사진 촬영	산업부, 회원사 CEO
17:50 ~ 18:20	30′	회원사 참석임원 소개 (각사별)	업계 CEO
18:20 ~ 18:40	20′	테이블 네트워킹	회원사 임직원
18:40 ~ 19:30	50′	건배 제의 및 만찬	참석 CEO 中 1명
19:30 ~	-	폐 회	사회자